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한해의 끝자락에 서게되며,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속에서 느낀 작은 기적들, 저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모두 저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경험들이 저희를 더 성장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곧 다가올 2025년을 맞이하며 올 한해동안 배운 것들을 잊지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때 그 능력이 갑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